

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복합디자인심사팀	과 장 박미영 042-481-5369 사무관 김지훈 042-481-5372
	2016년 5월 16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15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배터리도 이제 디자인이 경쟁력!

- 산업용 부품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필수품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

특허청(청장 최동규)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배터리 관련 디자인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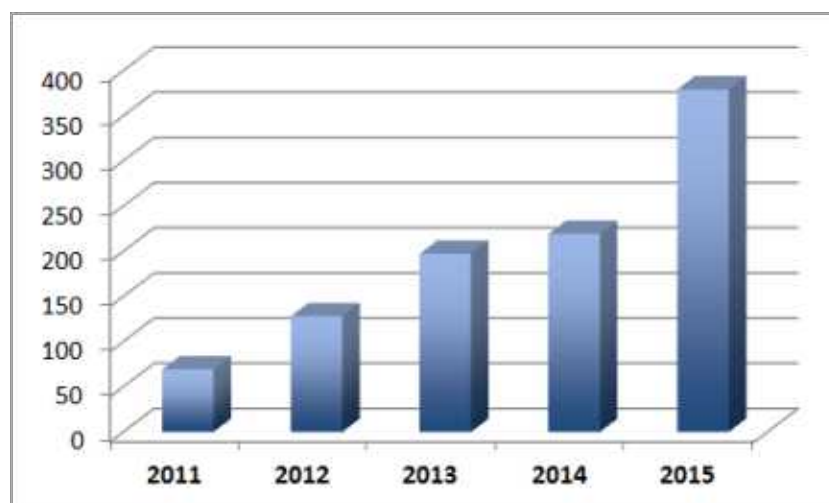
‘11년부터 ‘15년까지 출원된 배터리관련 디자인은 총 992건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년에는 69건에 불과하던 배터리관련 디자인출원이 ‘12년에 접어들면서 128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고 ‘14년에는 219건, ‘15년에는 다시 37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휴대용 배터리 디자인의 비중이 전체 배터리 디자인출원의 46.5%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원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11년 이후 매년 천만 명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데다가 이동 중에 음성통화 외에 게임, SNS, 동영상 감상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력소모가 큰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보조 배터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휴대용 배터리의 경우, 기존의 단순한 ‘벽돌형’디자인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위한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속속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호케이스의 기능과 배터리의 기능을 겸한 디자인은 물론, 최신형 스마트폰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엣지’ 디자인과 여성들을 겨냥한 ‘립스틱 케이스 형상’의 디자인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단, 휴대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산업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배터리의 경우도 디자인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스마트워치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작고 둥근 시계케이스 안에 용이하게 장착될 수 있으면서도 공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얇고 둥근 형태의 배터리셀 디자인이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제 배터리시장에서도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사에 대한 비교우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경쟁이 극심한 시장일수록 디자인이야말로 자사제품을 차별화시키는 핵심역량이며 이러한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 디자인출원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터리 분야 디자인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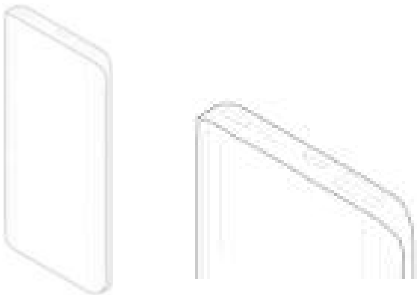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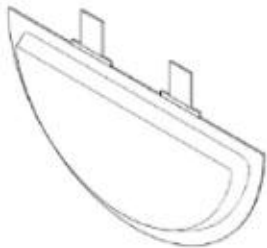
< 배터리관련 디자인출원 (건) >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69	128	197	219	379	992

< 휴대용 배터리관련 디자인출원 (건) >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
13	37	99	111	201	461

< 대표적인 디자인등록사례 >

	
배터리 (디자인 제0843720호)	휴대단말기용배터리 (디자인 제0738989호)
	
스마트폰 충전기 (디자인 제0770333호)	휴대용배터리 (디자인 제0703174호)
	
배터리가 부설된 스마트폰케이스 (디자인 제0826244호)	휴대폰배터리용충전기 (디자인 제0673615호)